

# 시설확충, 수행·요양 병행할 환경조성 필수

## 수좌회 노후복지법인 설립 배경과 승려 노후 복지현황

몇 년전 80이 넘는 수좌 스님 두 분이 시골 빈집을 빌려 기거하다 열흘 간격으로 입적했다. 시골집을 토굴로 사용하며 노쇠한 몸으로 손수 끼니를 지어 먹고 추운 방에서 살던 스님들은 병원에서 쓸쓸히 별세했다. 이는 평생 수행해도 나이 들어 갈 곳 없는 스님들의 현실을 대변해 준 사건으로 수좌 스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대에 따라 절집 문화도 변한다고 하지만 승가공동체의 이와 같은 풍토는 스님들의 수행 풍토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좌 스님 의료비 및 노후 생활 지원에 나섰다. 수좌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중단의 수행풍토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사장 의정스님은 “2009년 가을 총무

원장 스님을 만나 수좌 스님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조계종 소속 2천 3백여 참선수행자들 중 노환, 질병 등으로 한 해 50명에서 80여 스님들이 제방선원에서 나와야 하지만 이들이 마땅히 갈 곳은 없다. 이런 스님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고 수행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필요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수좌회의 재단 설립은 수좌 스님들의 복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회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의정 스님은 “현재 공사중인 봉암사 원로선원을 시범 운영해 본 후 범위를 점점 각 교구본사 별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납자들이 노후에 의식주나 걱정 없이 계속 수행 정진으로 회향할 수 있는 풍

토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전국선원수좌회 재단법인은 현재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에 2천평 규모의 원로선원 불사를 진행중이다. 총 공사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경시 지원금 15억원을 뺀 나머지는 회원 보시 동참기금과 중단지원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조계종 ... 승려노후복지회 설립, 21곳 위탁 운영

### 진각종 ... 중단 창립 초기부터 기로원 설립

이렇게 조계종이 중단차원에서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부터다.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회를 설립해 스님들을 위한 요양 시설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산하에는 전국 21곳의 노인협약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승려노후복지회는 충북 음성 미타사 경내에 비구니 스님

전용 공간인 밝은언덕요양원을 마련해 비구니 스님의 복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 선운사에 설립된 ‘승려노후수행마을’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제도는 중단 설립 초창기부터 노후 복지 공간인 기로원 설립, 연금 지급 등을 통해 성직자

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진각종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있다는게 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유제 진각종 정사는 “대구 비산동에 설립된 기로원은 65세 이상의 정사들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최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기로원은 정사들이 수행에 전념하며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중단차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천태종 구인사의 양로원, 총지종의 기로원 등도 불교 성직자들을 위한 중단 차원의 대표적 노후 대비 시설들이다. 올해 초 설립된 흥천 자명사 비구니 전용 요양시설은 초중단적으로 비구니 수행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신성문의가 높고 있다. 승가대사회복지학과 보각스님은 “예전에는 스님들이 상좌를 통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문중 개념이 퇴색된 요즘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원로선원 건립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각 스님은 “하지만 시설건립에 앞서 이를 어떻게 지속시키고 운영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꾸준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마련,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이 지속돼 스님들이 수행과 요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승려 노후 복지시설

지역	요양원명	연락처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02)2202-8733
서울 은평구	뫼타마을	(02)385-8205
경기 여주	신록사요양원	(031)885-5275
경기 안성	파리밭요양원	(031)676-4677
경기 화성	모희원	(031)356-5799
경기 파주	진안선원	(031)958-3043
충남 논산	영문사노인요양원	(041)734-9331
충북 음성	밝은언덕요양원	(043)873-0330
강원 평창	월정사노인요양원	(033)334-9595
강원 춘천	연화마을	(033)261-9300
강원 양양	낙산사상각원	(033)673-9801
부산 금정	부산금정노인요양원	(051)508-8822
경북 경주	불국성암원	(054)746-9900
경북 김천	진지사노인요양원	(054)431-9801
경북 영천	은혜사포근한집	(054)335-3314
경북 의성	고운노인요양원	(054)833-5900
경남 남해	화방동산	(055)863-2286
전남 나주	백양실버타운	(061)333-5622
전남 신안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061)271-6100
전남 여수	하안연못	(061)644-8877
강원 홍천	자명사	(033)432-9130
전북 고창	선운사	(063)561-1422
충북 단양	구인사요양원	(043)423-7100
대구 비산동	진각종기로원	(02)913-0751
경기 성남	총지종기로원	(031)751-8685

# 중앙종회의원 30% 출석...“실망스럽다”

## 조계종 중앙종회NGO모니터단, 모니터링 평가

3월 27~30일 열린 조계종 제189회 임시 중앙종회는 중단 최고 의결기관이자 임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3월 27~30일 열린 조계종 제189회 임시 중앙종회 모니터링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의 이번 평가는 ▷입법활동 ▷예·결산활동 ▷자성과쇄신결사 ▷시민사회활동 ▷성평등의 5개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모니터단은 “이번 종회는 전년도 예결산 및 중헌중법 개정안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으나 종회기간동안 의원스님들 출석률이 평균 30%에 이르는 등 불참율이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또, “2011 결산서·2012예산서 제출이 각각 11%와 13%로 미흡하다”며 “사찰 분담금 책정 근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10·27법안 피해자 보상 문제와 문화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2500억원 규모의 사찰 방재 사업에 관해서는 “의원스님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종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은 2011년 세출에서 예비비 사

용 비율이 총무원 60.6% 교무원 24.6% 포교원 12% 중앙종회 3%인 것에 대해, “다수 부처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차기연도 사업에추력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계획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포교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지적됐다.

**사찰 예·결산서 제출률 10%대 불과 2500억원규모... ‘스님들 잘 몰라’ 연구활동비는 고작 50만원 ‘비구니의원스님 더 적극적이어야’**

모니터단은 “포교원 예산은 전체 총무원 예산의 12%였다. 포교행정 지출금액 15억원 가운데 청년포교에 쓰인 돈은 9900만원에 불과했다”며 “예산 확정 등을 통해 청년포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스님의 연구비 지출이 250만원 가운데 50만원만 지출된 것은 의원스님들의 연구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승려복지를 위한 직접비용 확대 ▷비구니의원스님들의 적극적인 사표현 ▷성별통계 등을 제안했다. 모니터단 옥복연 소장은 “부정선거를 예방하고자 많은 논의를 거쳐 발의된 선거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의 허물은 덮고 우리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이 평가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해 종회 운영에 반영토록 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참여불교계가 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난 2월 발족했다. 이에 앞선 2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공동대표 퇴휴, 이하 불시넷)도 임시중앙종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개혁 입법안이 줄줄이 폐지 내지 부결되고 중단선거법은 논의조차 없이 이월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며 ‘과연 중앙종회라는 기구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과 회의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불시넷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된 중앙종회는 담벼슬 보다 못한 권능이 빠져 중도를 기만하고 우뚝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섭 기자

# “노동위 설치, 중단 관심 기울이겠다”

##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 예방 자리서

“옛것제 22번째 동지가 아파트에서 투신사살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불교계가 도와주세요.”

정리해고로 3년 여 동안 복지투쟁을 해온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4월 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한상균 노조지부장 가석방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종교인 연석회의에 불교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주 급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중생들이 못살겠다. 힘들다. 더 이상 동지들의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더 이상 노동자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 종교계에서 함께 힘을 모아 압력을 넣어주시길 소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스님은 “22명의 죽음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4월 21일 범종교인 연석회의에는 사회부와 결사본부와 상의해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부처님오신날 사면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스님은 “종단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약하다. 노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도울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주관으로 쌍용차 희생자 천도제, 희망멘트 방문 등을 해왔다. 이날 예방은 지난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희망멘트 방문시 노동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50주년을 돌아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4~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다’를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전을 개최했다. 전시된 대부분의 사진은 1982년부터 종단 주요행사를 촬영해 온 배영수 불자의 소장자료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와 함께 조계종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사부대중 결집대회, 학술세미나, 육조해는 대사 좌상 봉안법회 등 통합종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백재환 기자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나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

남·여 행자(에비스님)모집